



남원시, 제62주년 4.19 혁명 기념식 가져

남원시는 19일 오전 10시, 금지면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에서는 제62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양희재 남원시의회의장, 최정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이학모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회장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를 축소해 간소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4.19 혁명을 기념하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선열을 추모했다. 남원시에서는 4.19 혁명의 기록제가 된 김주열열사의 죽음을 기리고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열사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매년 3.14 제헌과 4.19혁명을 기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필야정 소속 김중배 공사가 전국 대회서 1위

정읍 필야정 소속 김중배 공사가 지난 17일 전남 구례 지산정에서 열린 전국 남여 궁도대회에서 15시 15분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500여 명의 공사가 참여해 그동안 같고닮은 실력을 점검하며 자신의 기량을 발휘했다. 김중배 공사는 불규칙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화살 15개를 쏘아 15개를 모두 맞는 기록을 세우며, 활쏘기를 시작한 지 3년 8개월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중배 공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매일 국궁장(필야정)에서 꾸준히 훈련한 결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국궁이라는 전통 무예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은 언제든지 필야정으로 문의해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국궁장(필야정)은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736㎡(222평) 규모로 지난해 준공했다. 필야정(사투 이주택)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된 전통 무예 활쏘기를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수련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구비해 놓고 활쏘기 지도를 하고 있다. 활쏘기(궁도)에 대한 문의는 필야정(063-533-4370)으로 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군 옥천장학회, 2022년도 장학금 지급

재단법인 순창군 옥천장학회(이사장 황숙주)는 지난 15일 2022년도 (재)순창군 옥천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상학생은 성적우수, 순창희망, 예·체능 특기, 저소득층 장학생으로 대학생 2명, 고등학생 68명, 중학생 9명, 초등학생 7명 등 총 87명으로 총 6,8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황숙주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역사회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해마다 장학금액을 늘려가고 있다"며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 옥천장학회는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적우수자, 예·체·능 특기생, 어려운 학생 급식비 등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순창군 학생에게 약 8억 4,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8,000여만원의 장학금을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진안소방서, 소방역사 품은 유물 찾기 운동 전개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19일 2024년 건립 예정인 국립소방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을 찾기 위해 소방유물 수집·기증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기증 대상 유물은 소방관련 사진과 문헌, 서적, 물품, 의복 장비·차량 작은 배지 등 크기·종류 상관 없고 전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소방유물자료관(firesum.or.kr)에서 '소방유물 기증운동'을 클릭한 후 소방유물기증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물 기증자에게는 ▲소방유물 기증증서 발급 ▲감사패 수여 ▲명예의 전당 통한 기증자 명단 수록 ▲전시 개막식 초청 등 특전이 주어진다. 오정철 서장은 "작은 사진 서류 한 장이라도 소방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소중한 소방유물이 될 수 있다"며 "소방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유물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진안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신규 공중보건의사 10명 배치

고창군,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역 근무로 의료공백 최소화

전북 고창군이 지난 18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놓여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 1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5명, 치과 2명, 한의과 3명이다. 기존 복무만료된 인원보다 의과 2명이 줄어 배치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배출되는 일반의 숫자가 예년보다 줄어든 탓이다. 고창군 보건당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개설 지역과 의사분업 예외지역등을 고려해 보건지소별 순환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환자진료, 예방접종, 건강상담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등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선별진료소 근무 지원과 이번 추가된 60세 이상 4차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업무지원도 수행하게 된다. 고창군 유병수 보건소장은 "복무기간 동안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로서 지역주민을 가족처럼 보살피는 마음으로 근무해 주길 바란다"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지소별 순환근무 실시로 의료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전북농협, 장애인복지시설에 보행보조기 후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송혁)와 함께 19일 장애인복지시설인 전주 희망해(대표 조숙희)에 장애인고용기업에서 만든 보행보조기를 후원했다. 이날 후원한 보행보조기는 바퀴가 다른 제품보다 견고하며 경량으로 만들어져 쉽게 이동과 보관이 가능하고 이동 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수납가방이 부착돼 있다. 또한 안전을 위한 차주브레이크가 부착돼 있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숙희 대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외출하고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북농협의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활동에 제약이 많아진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100년 전북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체육회-종목단체, 전북 체육 활성화 한 뜻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와 종목단체가 전북 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9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전북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북 체육 활성화 및 소통 강화를 위한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체육 영재 발굴 프로젝트인 체육 꿈나무 선발대회 등 지난해 전북체육회가 역점 추진했던 사업들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등 올해 펼쳐질 주요 체육 행사들도 소개했다. 또한 각 종목단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등을 발전시키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하나되는 전북 체육을 만들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정강선 회장은 "전북 체육이 한국 체육을 이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소통의 시간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종목단체와 자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제라이온스 356-C지구, 서신동에 백미 후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 전주1·2지구 2021-22년 회장단(대표회장 유상철)은 19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백미 10kg 400(150만 원 상당)을 전주 서신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서신성당, 서일성당에서 추천하는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노상목 서신당장은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국제 라이온스협회 356-C지구 회원님들의 봉사와 열정에 항상 감사드립니다"며 "전해주시 사랑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라이온스 356-C 전주1·2지구는 매년 서신동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효자2동 자율방재단, 노후 쉼터 시설 정비

전주시 효자2동 자율방재단(단장 김인순)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소에 발맞춰 야외 쉼터시설을 정비했다. 자율방재단원 25명은 지난 15일부터 4일간 효자광장 교차로 주변에 설치된 벤치, 그늘막의 노후화된 부분을 다듬고 새로 페인트칠을 하는 등 쉼터시설 정비를 진행했다. 김인순 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주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질 것"이라며 "자율방재단이 정비한 쉼터가 주민들에게 다시 찾는 일상을 즐기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효자2동 자율방재단은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캠페인, 코로나19 방역 동참 호소를 위한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혁신동, 코로나 확진자 '원예치료 프로그램' 모집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동장 이성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성근)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스트레스 해소와 주민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를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혁신동 주민자치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 2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신청대상자는 혁신동 관내 주민 중 2022년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가 끝난 주민 세대 중 1명으로 희망자는 혁신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혁신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ysojr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성근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 삶에서 식물을 만들고 가꾸며 오감자극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치유 원예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정읍 신태인농협, 조합원 무료건강검진 호평

정읍 신태인농협(조합장 김성주)은 지난 4월부터 2022년 조합원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는 짝수년에 출생일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일정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100명이 검진을 받을 예정이며 차량이동이 불편한 조합원은 모시고 가는 편의를 제공했다. 신태인농협의 조합원 무료 건강검진은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00여명의 조합원이 검진을 통해 크고 작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성주 조합장은 "100세 시대의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신태인농협의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조합원의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종교단체 최초로 단체헌혈 진행

신천지예수교회 증경장광성전은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74개 교회에서 '생명 ON'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을 동시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총회본부 및 12지와 중진 사명자 교역자 등 건강한 성도들이 각 도시별로 혈액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헌혈 버스를 이용해 동참한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6천명 분의 혈액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도마지파에서 지난 18일 251명이 헌혈에 참여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전주, 익산, 군산 정읍지역에서 캠페인을 예정하고 있어 헌혈 참여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상 도마지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각한 혈액수급 위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신천지예수교회의 헌혈 참여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해서 사랑이 넘치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허정구 전라북도 혈액원장은 "종교단체 최초로 신천지예수교회 도마지파에서 단체헌혈에 참여해주셨다.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많은 단체가 헌혈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